전북 문명길 복원의 미래 확인한다

전북대 쌀 · 삶 · 문명연구원, 오늘 연구 공유 학술대회 개최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원장 이정덕)은 전라북도의 옛길과 문명길, 문화권 복원 등 연구 사업의 의의와 활용, 그리고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오늘 인문사회관 205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전북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지오앤, 웨이즈원(주)이 공동으로 '실크로드의 재조명-문명의 통로로서 전라북도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대는 이 연구를 통해 전북의 고고역사문화자료와 환경자료를 수집해 옛길, 문명길, 문화권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료를 투입하여 옛길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작업과 공개플랫폼 실크로드피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옛길, 문명길, 문화권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관광, 문화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세계적으로 옛길, 문명길, 문화권을 찾아내는 웹기반 공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그간 연구 성과와 의의를 연구자들이 발표한다.

'길과 문명의 의미'를 찾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옛길과 문명길에 대한 4개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길들이 한반도와 전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논의한다.

신정일 (사)우리땅걷기 대표는 전북과 전남을 이어주던 '삼남대로의 갈재길'을 현장에서 어떻게 추적하고 찾아냈는지의 과정을 발표한다.

이정덕 전북대 쌀·삶·문명 연구원 원장과 김미숙 전북대 쌀·삶·문명 연구원, 박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의 '한반도 문명의 주요 거점 전북지역의 해양실크로드와 유적·유물 집적도'는 전국의 매장유물집적도와 비교해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전북의 매장유물집적도가 매우 높아 전북이 고대 한반도 문명의 거점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보화시대의 문명연구'를 다루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옛길, 문명길, 문화권역의 과학적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발하고 개선해왔는지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이러한 길과 문화권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개발의 과정과 성과를 상세히 소개한다. 즉, 알파고처럼 더 많은 자료를 투입하면 더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공개된 웹기반 플랫폼 '실크로드피아'의 개발과정을 보여준다.

이정덕 원장은 "대학교 연구진과 플랫폼 개발업체가 산학협동을 통해 옛길, 문명길, 문화권과 관련된 공개 웹기반 알파고를 개발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전북의 옛길과 문명길 복원에 대한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정읍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8월 21일까지
3 · 1운동을 시 · 공간적으로 살펴보도록 구성

정읍시립박물관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기획특별전 '정읍의 함성, 대한독립 만세'를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 이어진다.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 울려 퍼졌던 독립의 함성 중 정읍의 함성을 찾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3.1운동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우리 지역 정읍에서 펼쳐진 3.1운동의 모습을 시·공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정읍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재조명했다.

전시유물로는 정읍 독립운동가의 판결문과 독립선언서 등 독립운동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물을 전시했다.

특히 정읍 독립운동가 박지선이 기록한 태인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외에 연계프로그램으로 태극기 퍼즐과 태극기 탑본, 우리 손으로 완성하는 대형 태극기, 독립선언서 읽기 등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전시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선조들의 뜻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관람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박물관(☎ 063-539-6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사국악원과 정읍농악전수회관이 내달 1일부터 신규과목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정읍사국악원 · 정읍농악전수회관, 신규과목 개설… 이달 말까지 연수생 모집

정읍시의 국악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읍사국악원과 정읍농악전수회관이 내달 1일부터 신규과목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정읍사국악원은 북(판소리 장단)과 장구(민요 장단)를 배울 수 있는 '고법(鼓法)' 과목을, 정읍농악전수회관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정읍농악'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쇠'와 '장구', '소고' 과목을 개설한다.

고법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명고수부 장원에 빛나는 박상주 교수가 교육을 맡는다.

쇠와 장구, 소고 교육은 전북무형문화재 '정읍농악'의 예능 보유자로 유명한 유지화와 김종수 선생이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신규과목뿐만 아니라 기존 과목도 국악 연수생을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면서 "모집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자유롭게 수업을 참관하고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강 신청이 망설여진다면 직접 와서 국악의 흥을 먼저 느껴보고 신청해도 좋다"고 전했다.

수강료는 기초반 기준으로 학생은 월 1만원이며 일반은 월 1만5천원이다.

교육 시간과 수강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사국악원(539-6413) 또는 정읍농악전수회관(539-6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도문화관광재단, JB탐험대 통한 전북관광 활성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이 주관하는 2019 전라북도 문화대탐험 'JB탐험대'가 성황리에 마쳤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전라북도 외 거주자 30명으로 구성된 JB탐험대는 지난 6월 무주 산골영화제와 태권도원, 장수 승마레저파크와 논개생가, 진안 홍삼스파,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 지역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라북도에서 놀고 먹고 즐겨라', '나만 알고 싶은 전라북도 여행기', '인생샷은 어디서? 전라북도에서' 등 각자의 개성이 담긴 주제로 총 71건의 전북관광 SNS콘텐츠를 직접 제작했다.

이번 콘텐츠는 탐험대원의 퍼스널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재단 홍보채널을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에 활용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참가자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4.63점(5점 기준), 향후 전라북도 재방문 여부에 관한 응답에서는 4.93점으로 집계되, 재단은 전라북도 관광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JB탐험대에 참여한 노민경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교수는 "이미 잘 알려진 관광지가 아닌 전북의 소소한 힐링 포인트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코스가 좋았다"며,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미션을 수행하는 탐험대원들과의 동행으로 프로그램이 더욱 활력 넘쳤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사업으로 발굴된 콘텐츠 총 71건 이외에도 재단 자체적으로 영상 등을 제작해 2차 홍보콘텐츠로 활용 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